



여자청소년핸드볼대표팀이 9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헝가리를 꺾고 결승에 오른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은 11일 덴마크를 상대로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 캡처 | 국제핸드볼연맹 홈페이지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 결승 진출 내일 덴마크 상대로 첫 우승 도전

16년 만에 결승에 올랐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덴마크를 상대로 사상 첫 우승과 함께 16년 전 패배의 설욕을 노린다.

김진순 감독(인천비즈니스고)이 이끄는 한국이 9일(한국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대회 준결승에서 헝가리를 30-29로 꺾었다. 김서진(7골), 임서영, 김민서(이상 6골), 차서연(5골), 이해원(3골) 등이 골고루 활약한 덕분이다.

전반을 17-16으로 근소하게 앞선 한국은 29-28로 리드한 경기 막판 임서영의 득점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어 수비에서 헝가리 페트라 시몬의 슈트를 골키퍼 김가영이 잘 막아내면서 승리를 낫았다. 헝가리에선 페트라 시몬(9골), 릴리야나 체르잔스키(8골) 등이 분전했지만 한국을 넘어서기엔 부족했다.

18세 이하 선수들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만 7연승을 거뒀다. 조별리그에선 스위스(32-28)~독일(34-28)~슬로바키아(34-30), 결선리그에선 루마니아(33-31)~네덜란드(26-24), 8강전에선 스웨덴(33-27)을 잇달아 격파한 데 이어 이날 준결승에선 헝가리마저 제압했다.

한국은 11일 덴마크와 결승전을 치른다. 공교롭게도 한국은 2006년 제1회 대회 결승에서 덴마크에 33-36으로 져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한국은 2016년과 2018년에도 3위에 오른 바 있다. 권재범 기자 jmart220@donga.com

광복 77년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 14일 청와대부터 서울 도심을 달려요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14일 광복 77주년을 맞아 청와대부터 국립중앙박물관까지 국민 1000여 명이 달리는 ‘함께 그리는 태극기’ 행사를 개최한다.

달리기는 8km 단일코스로 진행된다. 올해 국민에게 개방된 청와대 영빈관부터 광화문광장까지 1km는 모자를 활용한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며 걷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까지 7km는 다 함께 달리는 비경쟁 행사로 운영된다. 독립 유공자 후손 30여 명, 인플루언서 안정은 러닝 전도사, 사격 진중호 선수 등 메달리스트들도 참여한다. 특히 달리기 코스는 걷기 구간 종료 후 광화문광장에서 출발해 시청광장과 승례문, 서울역을 거쳐 국립중앙박물관까지 변화한 도심을 달리는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korearun.co.kr)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후원한다. 참가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요원과 스포츠안전재단의 스포츠안전관리사가 함께 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오늘의 경기	(10일)
프로야구	● KIA-삼성(대구) kt-SSG(인천) LG-한화(대전) 롯데-키움(고척) NC-두산(잠실·이상 18시30분)
프로축구	● 수원FC-전북(19시·수원종합운동장) 강원-대구(19시30분·춘천송암스포츠타운)
야구	● 대통령배전국고교대회(9시·목동구장)
펜싱	● 대통령배 전국남녀선수권대회(9시·홍천종합체육관)
테니스	● 제3차 한국실업연맹전(영월스포츠파크)
하키	● 제36회 대통령기 전국대회(9시·제천 청풍명월하키경기장)
근대5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대회(9시·해남 우슬체육공원)
승마	● 대통령기 전국대회(8시·장수승마장)
씨름	● 제8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대회(10시·한림대 레크리에이션센터)
볼링	● 대통령기 전국대회(9시·구미빅히트볼링경기장, 복합스포츠센터, 상주월드컵볼링경기장)

‘스포츠동아배 결승’ 김관희·김민배 핫하네!

김관희 강한 선행력으로 성적 쪽쪽
김민배 비선수 출신 스타 계보 이어
승률 50% 전원규 톱10급 선수 성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8월. 하지만 특선급 준강자들에게 이런 휴가철의 설렘과 여유는 사치다.

위로는 임채빈(SS반), 정종진(S1반) 등의 강자들이 있고 밑으로는 호시탐탐 위로 올라갈 기회를 엿보는 우수급과 선발급의 다크호스들이 있다. 그 사이에서 특선급 실력파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먼저 스포츠조선배 대상경륜 우승자 전원규(23기 S1반)가 있다. 올해 성적만 보면 승률 50%, 연대율 72%, 삼연대율 83%로 톱10급 선수다. 7월 31일 광명결승에서 자타공인 현 경륜의 절대강자 임채빈이 같은 슈퍼특선급의 황인혁을 제



4월 대상경륜에서 전원규(5번 노란색 저지)가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치고 대신 전원규를 후미에 붙여 동반입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느새 입지가 탄탄해졌다.

올해 데뷔 4년째인 24기 훈련원 1위 공태민(S1반)도 올해 승률 39%, 연대율 61%, 삼연대율 71%로 김포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22기 훈련원 1위 김희준(S1반)은 올해 스포츠조선배에서 생애 첫 대상경기 준우승도 차지했

다. 어디로 뻗지 모르는 변칙적 경주는 영이 특징으로 상대하기 가장 까다로운 선수로 꼽힌다.

세종팀의 기대주 김관희(23기 S1반)는 승률 26%, 연대율 44%, 삼연대율 70%로 삼척권 내에서 강한 선행력을 주무기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지난 해 경륜계 장기념 대상경륜과 올해 스포츠동아배 결승, 스포츠서울배 결승에 진출했다. 같은

세종팀의 김범수(25기 S1반)는 데뷔 초 유성에서 활동하다 세종팀으로 훈련지를 옮긴 후 올해 스포츠조선배 결승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신생팀 신사의 대표주자 이태호(20기 S1반)는 ‘마크의 달인’이다. 내측을 파고 들면서 마크를 빼앗는 특유의 전략으로 경륜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신인급인 26기의 간판스타 김영수(S1반)는 부상 탓에 훈련원 성적 꼴찌로 데뷔했지만 실제 레이스에서는 신인 중 가장 먼저 특별승급으로 특선급 입성에 성공했다.

비선수 출신 스타의 계보를 잇는 얼굴로는 최근 가장 핫한 김민배(23기 S2반)가 있다. 7월 15일부터 성적이 올라가더니 이번 스포츠동아배 대상 결승까지 진출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여름 경기 결과에 따라 특선 준강자의 도약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하반기 활약을 기대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 10·11일 ‘물보라’

연말 그랑프리 못지 않은 빅매치
김종민 조성인 심상철 격돌 관심

제32회차인 10일과 1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경정 왕중왕전’이 열린다. 이번 특선 경기 진출자는 1회차부터 30회차까지 평균득점 상위자 12명이다.

출전이 예상되는 선수로는 김종민, 조성인, 심상철, 김현철, 김효년, 박종덕, 배혜민, 김응선, 이용세, 류석현, 김완

석, 어선규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존 강자들과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신흥세력이 격돌해 연말 그랑프리만큼 관심이 뜨겁다.

우선 경정 최강 트리오 김종민, 조성인, 심상철이 결승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큰 관전포인트다. 세 선수 중 왕중왕전 우승기록이 가장 많은 선수는 심상철이다. 총 5회 출전해 2016년과 2017년, 2019년 3회 우승을 했다. 올 시즌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종민도 2004년과 2010년 두 차례 우승과 2011년



코로나 전인 2019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선수들이 출발선을 통과하고 있다. 우승 1500만원으로 상금도 높은 레이스여서 예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는 빅매치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준우승 기록을 갖고 있다. 두 선수와 달리 조성인은 아직까지 이사장배와 인연은 없지만 이번에 첫 우승에 도전할만한 컨디션이다.

올해 출전이 유력한 어선규는 이사장배에 총 6회로 최다출전 기록을 보유한 선수 중 한 명이다. 2010년 3위, 2015년 2위, 2018년 3위로 입상했다.

그 외 모처럼 출전 기회를 얻은 박종덕의 활약 여부도 관심거리다. 데뷔 후 그동안 대상경주와 큰 인연이 없었던 만큼 어렵게 출전하는 예선전에서 남다른 집중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경정 예상지 패속정의 임병준 팀장은 “왕중왕전은 1등 1500만 원으로 상금도 많아 그랑프리 못지않은 빅매치”라며 “출전선수 모두 정상급 기량을 가지고 있어 예선부터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재범 기자

골프 세계랭킹 21위 김주형 프레지던츠컵 출전 보인다

세계선발팀 단장 “10년 뒤 팀을 이끌 수도 있는 선수”

세계 랭킹 21위로 도약한 김주형(20·CJ대한통운)의 프레지던츠컵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주형은 9일(한국시간) 발표된 2022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 랭킹에서 5위를 기록했다. 지난주 14위에서 9계단을 점프했다.

프레지던츠컵은 세계 토폰거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별들의 대항전’이다. 유럽을 제외한 인터내셔널팀(세계연합팀)과 미국팀 간의 골프대항전으로 격년제로 열리는 대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대회가 연기돼 9월 22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예정이다. 팀 당 12명이 출전하며 8명은 세계랭킹에 따라 결정되고 나머지 4명은 각 팀의 단장이 추천해 팀을 구성한다.

김주형은 올해 세계랭킹 131위로 출발했지만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에서 우승하며 89위로 뛰어났다. PGA 투어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 3위로 50위권, PGA투어 로켓 모기치 클래식 7위로 30위권에 진입하더니 8일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원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21위가 됐다.

김주형에 대한 프레지던츠컵 측의 평가도 호의적이다. 세계선발팀 트레이너 이멜만(남아공) 단장은 PGA투어와의 인터뷰에서 “김주형은 앞으로 20년은 프레지던츠컵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10년 뒤에는 팀을 이끌 수도 있는 선수”라고 극찬했다.

김주형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출전권도 확보한 만큼 성적에 따라 세계랭킹을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 김주형보다 한 단계 세계랭킹이 높은 임성재(24)도 프레지던츠컵 출전이 유력해 보인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PGA 투어 원덤 챔피언십 우승으로 세계 랭킹 21위에 오른 김주형의 프레지던츠컵 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덤 챔피언십 최종라운드 8번홀에서 아이언샷을 하고 있는 김주형. AP 뉴시스